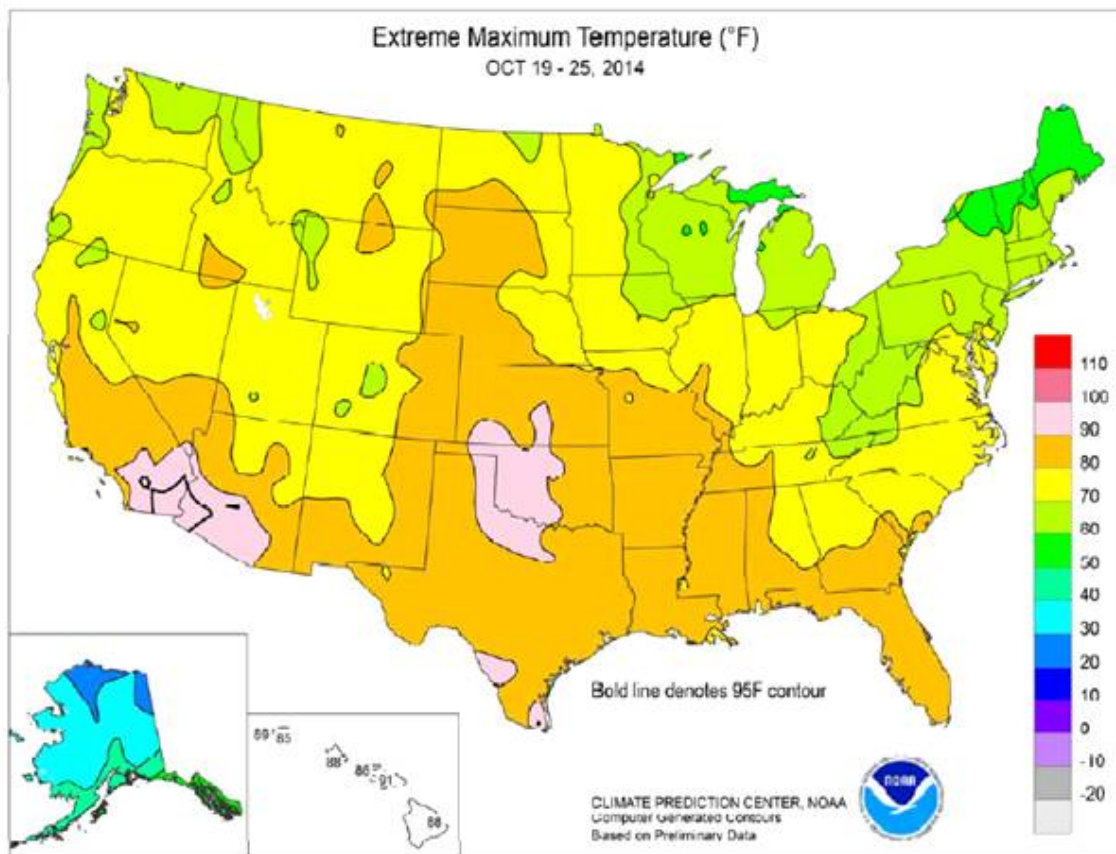


10월 2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43)

□ 미국 기후 현황(10/19~10/25)



주 중반 짧은 비가 내리고 건조한 날씨가 중부지역에 형성되었다. 평야지역에서는 후기 따뜻한 날씨로 인해 여름작물의 수확과 가을밀의 출수가 증진되었으며, 남부 생산지역에서는 가뭄현상이 발생하여 밀 수확에 근심이 이어졌다.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동부 콘벨트 지역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날씨는 중서부 지역의 야외 농작업을 가속화시켰다. 10월 말에는 가을밀의 파종과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 작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중서부 지역에서는 지연된 여름작물의 성숙과 초기에 내린 많은 양의 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야외 농작업은 평균적인 추세보다 뒤쳐진 상황이다. 남부지역에서는 평년대비 낮거나 비슷한 기온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외 농작업을 하기 좋은 날씨를 경험하였다. 남부지역에서는 과도한 수분이 지속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가을 밀 파종과 면화, 견과류, 대두의 수확과 같은 야외 농작업을 고취시키는 조건을 갖추었다. 한편, 북동부지역과 북서부지역에 한정하여 중요한 비가

내렸다. 북동부지역에서는 주 후반, 느리게 이동하는 폭풍으로 인해 많은 양의 비와 바람이 발생하였다. 주 후반에는 록키 북부 내륙지역과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몇 차례에 걸친 비가 내렸다. 주간기온은 북부와 중부 평야지역의 경우 평년대비 적어도 10°F 가 높았다. 10월 24-25일경에는 중부 북부 평야지역의 기온이 90°F에 육박하였다. 한편, 대호 지역(위스콘신과 미시건 포함)에서는 10월 19일에서 22-23일에 결빙현상이 나타났다.

□ 농업 현황 요약(10/20~10/26)

미국 전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형성되어 수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단지 뉴잉글랜드, 태평양 북서부, 플로리다의 경우에는 주간 강수량이 2인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미시시피 강 서부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대평원의 경우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9°F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동부지역은 평년대비 평균 3°F정도 기온이 낮게 관측되었다.

■ 옥수수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성숙단계에 진입한 옥수수는 96%p로, 전년대비 뿐만 아니라, 5년 평균대비 다소 늦은 수준이다. 건조한 날씨는 콘벨트 지역에서 가을에 농작업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아이오와와 미네소타의 수확진행률은 각각 17%, 25%를 기록하였다.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옥수수 수확률은 40%p로, 전년대비 10%p, 5년 평균대비 19%p 뒤쳐진 상태이다. 미국 전체 옥수수의 상태는 74%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이었지만, 전년동기 대비 12%p 향상된 상황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대두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미주리 지역의 대두 생산자들은 적어도 20% 가량 수확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대두의 수확은 70%p가 진행되었으며, 전년대비 5%p, 5년 평균대비 6%p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 쌀

10월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96%p의 쌀을 수확하였으며, 전년대비 3%p 뒤쳐졌으나, 5년 평균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캘리포니아 지역의 수확상황은 1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면화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꼬투리가 열리는 현상을 보이는 면화는 91%p로, 전년대비 다소 앞섰지만 5년 평균대비 4%p 뒤쳐진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면화의 수확이 1/4 가량 진행된 지역은 알칸사스, 캘리포니아, 남부 캐롤라이나 지역이었다. 텍사스에서는 면화의 수확이 계속되었으며, 많은 밭에서 잎을 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면화의 수확은 42%p 되었으며, 전년대비 10%p 높았고, 5년 평균대비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면화의 상태는 48%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다소 향상된 수치이며, 전년동기 대비 4%p 나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10/19~10/25)

- 유럽: 영국과 발칸반도에서는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전선과 결합되어 비가 내렸고, 겨울 작물의 발아와 출수에 충분한 수분을 적절히 공급하였으나, 야외 농작업에는 방해가 되었다. 영국에서부터 프랑스와 독일 북부지역에서는 소량 또는 적당량의 비(2-25mm)가 지속되어 여름작물의 수확과 추가적인 겨울 작물의 파종을 포함한 야외 농작업을 지연시켰다. 한랭전선은 남동부 지역으로 이동했고, 저기압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확대되었다. 독일 남부지역과 폴란드 및 다뉴브강 유역에서는 25-50mm의 비가 내려 여름작물의 수확을 포함한 야외 농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비와 진눈깨비는 가을 밀, 보리, 유채의 수립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충전시키고 유지하는데 대체로 효과적이었다. 한편, 건조한 날씨를 남부 유럽 지역인 이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에 도래하였으며, 옥수수과 해바라기의 수확과 겨울 곡물의 파종을 촉진하였다. 중부와 서부 유럽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평균 3-5°C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발칸반도와 폴란드 지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구소련(서부): 이 지역에서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형성되었다. 강력한 한랭전선은 비와 진눈깨비를 서부와 남부 러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도 발생하게 하였다. 가을 밀 주요 재배지역인 남부 러시아에서는 총 강수량이 25mm를 기록하였으며, 겨울 곡물과 유채의 생육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랭전선이 지나고 난 후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5°C까지 낮았고, 가장 추운 기온은(밤 최저기온은 영하 10°C 혹은 그 이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눈이 내리거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남부와 북부 코카서스 지역의 가을밀은 아직 휴면기에 접어들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변화가 심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형성되어서 옥수수와 해바라기 수확을 하기에 유리하였다. 한편,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재배되는 가을밀에는 10-25mm의 비가 내려 도움이 되었다.
- 동아시아: 중국 전역에서는 여름작물의 수확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가을밀과 유채의 파종도 이루어졌다. 주 초반에는 겨울 작물이 재배되는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으며, 북중국 지역의 남부지방에서는 100mm에 이르는 강수량이 기록되어 토양 수분을 충분히 충족시켰으며, 가을밀 발아와 출수 및 수립을 촉진시켰다. 한편, 양쯔강 유역에서는 소량의 비(10-25mm)가 내려서, 겨울 유채의 수립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쌀 수확에 도움을 주었고, 빠른 속도로 수확이 완료되어 갔다. 한편, 북동부 중국에서는 서늘하고 비 내리는 날씨로 인해 가끔 눈이 내리기도 해 옥수수와 다른 여름작물들의 마지막 단계인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중국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대비 2-4°C 정도 높았기 때문에 겨울 작물의 성장에 효과적이었다.
- 호주: 호주 서부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에 내린 비(10-25mm)로 인해 미성숙한 겨울 밀에 도움이 되었지만 일찍 파종되었거나 성숙한 겨울 작물들(보리, 카놀라)의 경우에는 수확과 건조작업이 늦어지게 되었다. 호주 남부 지역의 밀 벨트에서는 덥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다. 남동부 호주에서는 겨울 작물들의 수확이 시작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한 주 동안 지연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북부 뉴사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 지역에서는 덥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겨울 작물의 성숙과 수확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건조한

지역에서 재배되던 작물의 표토층 수분을 감소시키고, 관개 요구를 증가시키는 등 높은 기온과 건조함은 최근 파종된 여름작물에는 환영 받지 못할 일이었다. 이 지역 여름작물의 출수와 수립을 돕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부와 동부 호주에서는 평년대비 기온이 평균 1-5°C 정도 높았으며, 최고 기온은 5°C 초·중반을 기록하였다. 호주 서부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평균 1-2°C 높았으며, 최고 기온은 대체로 20°C 후반으로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 대체로 건조하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아르헨티나 중부 주요 재배지역인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을 촉진하였다. 대체로 강수량은 산발적이고 소량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주 초반 서늘한 날씨가 시작(낮 최고기온은 며칠간 30°C 초·중반을 기록함)되었으며,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4-6°C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발적인 소나기는 북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Santiago del Estero에서 Corrientes 지역까지 위성으로 추정된 강수량 자료를 살펴보면, 겨울 곡물의 생육발달과 새롭게 파종된 여름작물(해바라기 포함)의 수립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중부와 유사하게, 따뜻한 날씨는 주 후반을 지배하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주말경에 40°C에 달하였으며,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4°C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의 주요 대두 생산지역에서는 비가 내렸으며, 계절에 맞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몇 주간 지속된 후라 파종 전망을 향상시켰다. 중서부 지역(Mato Grosso, Goias, and Mato Grosso do Sul)의 경우 총 강수량이 25mm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Mato Grosso의 일부지역에서는 강수량이 100mm 가 넘는 곳도 있었다. Soa Paulo와 Minas Gerais에서는 소량의 비(5-35mm)가 남동부 지역으로 확장되어 내렸다. 비가 내려서 최근의 고온과 건조함을 일부 완화시켜주었으며, 커피의 개화에 적절한 수분을 확실히 공급해 주었으며, 설탕의 생산에도 도움이 되었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3°C 이상 높았고, 비로 인해 더욱 온난한 날씨가 형성되었다.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에서 40°C 초반이었으나, 주말경에는 20°C 중반에서 30°C 초반으로 떨어졌다. 한편, 산발적이며 소량의 비(25mm 미만)가 내린 Parana에서는 밀 수확이 시작되었으며, Rio Grande do Sul과 Santa Catarina에서는 적당하거나 많은 양(25-65mm)의 비가 내려 밀의 성숙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편,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는 북동부 연안지역에서 계속되었으며, 사탕수수 와 코코아의 수확에 도움을 주었다.